

『항일음악 330곡집』을 내면서

민족국가 수립을 위하여 헌신한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 선생이 1937년 6월 두 번째로 형무소에 수감(동우회 사건)되었다. 고문을 받고 병세가 악화되어 병보석으로 출옥하였지만 1938년 3월 10일에 순국하였다. 모두가 울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중국 충칭(重慶)에 있던 한국인들 또한 모두 슬픔에 잠겼다. 민족혁명당이 중심이 되어 추도회를 갖기로 하고 1938년 4월 19일 오후 2시에 충칭시 상회(重慶市 商會)에서 추도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인 100여 명, 중국인 200여 명 등 총 300여 명이 모인 추도회에서 「추도가」와 「애국가」를 불렀다. “가슴 쥐고 나무 밑에 쓰러졌다 혁명군 / 가슴에서 흐르는 피 푸른 풀에 질박해”라 부르는 「추도가」는 안창호 선생의 유지를 계승하여 일제와 최후까지 싸워 한국의 독립과 한국민족의 해방투쟁에 매진하자는 피울음의 항일노래였다. 안창호 선생은 도처에 살아있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올드 랭 사인」 곡조에 부른 「애국가」는 1890년대부터 「무궁화가」로 불렸던 애국가이자 일제강점기 국내외 어느 곳에서도 항일가였다.

1935년 7월 중국 난징(南京)에서 의열단·신한독립당·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미주대한독립당 등이 통합하여 결성한 민족혁명당은 중국 항일전에 나서면서 개최한 안창호 선생 추도회에서만 항일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창립기념식이나 3월 1일 독립운동 기념식 등에서 「전기가」(戰旗歌), 「군가」, 「교가」 등을 부르면서 “타도 일본제국주의”와 “조선독립만세”, 그리고 “중국혁명만세”를 벽에 표어나 포스터로 써 붙이고 만세삼창을 하였다. 이 노래들은 이후 항일전이 전개된 곳곳에서 불렸다. 「전기가」는 ‘동방의 강도 일본을 우리 칼로 무찔러 새 나라 새 역사를 열자’라는 노래이며, 「군가」는 「혁명군가」 또는 「혁명가」로 알려진 노래이다. ‘동무들아 굳게굳게 단결해 생사를 같이하고 혁명군의 선봉대로 나가자’로 노래한다. “꽃피는 옛 나라에 봄빛이 없고 물끓는 큰 못이 움직이니 여기에 모일 곳이다”는 「조선혁명간부학교 교가」이니 모두 항일노래이다.

항일음악은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침략과 지배를 반대한 투쟁 음악이다. 항일음악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여 해방을 쟁취함으로써 자주독립을 이루고 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항일음악은 애국계몽운동·독립운동·해방운동·변혁운동 등을 모두 아우르는 혁명음악이다. 항일음악에는 동학농민운동 시기에서 1945년 해방되는 시기까지 국내외에서 불린 반일노래가 모두 포함된다. 항일음악에는 노래(성악)로서 독창·중창·합창, 기악으로 독주·중주·합주, 그리고 종합형태로서 합창과 관현악으로 편성된 가극과 관현악곡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항일노래’이다. 애국가·독립가·혁명가·독립군가·항일가요·혁명가요·반일가요·항일가곡 등이 모두 항일노래인 것이다.

항일음악으로서 동학(東學)은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므로 사람이 하늘이기에 누구나 인격적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표현하는 노래들을 불렀다. 농민들은 물론 이들보다 더 천대를 받은 노비와 광대, 무당, 역인, 백정 등 모두가 인격적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자 하느님이었다. 손화중과 김개남 장군은 창우나 재인을 뽑아 최강의 동학군으로 활동하였다. 창우(倡優)는 신청(神廳)이나 재인청 출신으로 판소리와 줄타기 하는 사람들이고, 재인(才人)은 줄타기 등 산대(山臺)를 하는 사람들이다. 동학농민운동으로 사회신분제도가 폐지되어 인간으로 해방이 된 것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들이 동학도로서 주체적 인간으로 활동한 결과이다.

1893년 봄 보은집회에서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 특히 일본제국주의를 거부하고 물리치자는 척왜운동을 펼친데 이어 1894년 가을 일본제국주의가 서양식 군악대 2대와 보병 14여단을 앞세워 침략하자 일본군을 쫓아내려는 항일운동을 펼쳤다. 일본제국주의는 수십 문의 대포와 서양총을 앞세워 우금치전투(11월)이래 동학농민 40만 명을 학살하였다. 동학농민운동은 을미(1895)·을사(1905)·정미(1907) 의병항쟁과 함께 1910년 8월 국치일 이후 항일독립운동 세력의 근간이 된 위대하고 숭고한 한국민족의 항일운동이었다. 1894년 이들 모두가 불렀던 「칼노래」와 「새야새야 파랑새야」 및 「가보세 가보세」(『항일음악 330곡집』에 미수록)가 바로 항일노래로 불렸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근대가 전개되면서 전통음악은 말할 나위 없고, 일반적인 음악조차도 학교음악으로 자리잡지 못하였지만, 1900년대 애국계몽운동 시기의 학교음악은 근대음악으로서 ‘창가’ 또는 ‘찬송가’가 국민들 속에서 확립되어간 점이다. 사립학교에서는 기독교계 중심으로 『찬송가』가, 관공립학교에서는 일본 쇼오카(唱歌)를 번역한 ‘창가’가 음악교과서로 사용되었다.

1910년 5월 대한제국 학부가 발행한 최초의 음악교과서인 『보통교육창가집』 역시 일본 창가들을 번역하거나 개사한 창가집이다. 특히 1910년 8월 강제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일본

식 창가가 실려있는 음악교과서로 교육하도록 강제하였다. 그 결과, 국권회복을 위해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현장에서 부른 노래는 대부분 찬송가 또는 일본 노래들의 곡조를 사용하게 되었다. 마치 서양과 일본 총을 노획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하듯이! 그러므로 민족의 위대한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담고 있는 가사에 유의하여 노래 불러야 할 것이다.

『항일음악 330곡집』은 1990년대부터 한국과 일본 및 중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중심을 이룬다. 분량의 제한으로 많은 곡들이 선정되지 못한데다 북한자료 및 중문 중국자료들이 빠져있는 아쉬움이 있다. 또, 「조선혁명간부학교 교가」처럼 악보로 전해지지 않는 항일노래는 여기에 신지 않았다. 중국 연변(延邊)과 창춘(長春) 중심으로 수집한 자료들은 김덕균·리승권·서영화·황선열·박경수 선생의 도움이 컸다.

그동안 필자는 중국 동북 각지의 항일노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가곡선집』을 1990년에 발굴하여 그 해 월간 『다리』 1월호에 발표한 이래, 「갑오농민혁명의 음악주체들」, 1993년 「소안도 사람들의 민족음악운동」, 최초의 항일음악 학술대회인 2005년의 ‘남북한음악학술대회’(1. 항일음악, 2. 남북한음악교류), 2005년 이후의 ‘정율성국제학술대회’와 『정율성작품집』 1·2 등을 펴냈다. 그리고 2011년 항일음악회조직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개최한 ‘항일음악회’(2011.11.24)를 진행하면서 이 곡집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이번 『항일음악 330곡집』을 통해서 많은 작품들을 처음으로 복원하여 출처까지 밝혀 신게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곡집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필자가 ‘항일음악회’를 개최하면서 『항일음악』(가제)과 『친일음악』(가제)을 발간하기로 하고 민족문제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편찬작업에 착수한 뒤 나온 첫 결실이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관심과 뜨거운 격려로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한 임헌영 소장과 특히 편찬실장인 이용창 책임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항일음악연구에 도움을 준 조세열 사무총장과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방학진 사무국장 모두에게 감사하다. 모두가 이 책이 나오기까지 4년간 기다리며 투병하는 내 손을 잡아주었다. 또 원고와 악보를 한 땀 한 땀 학술적인 검토로 교정을 보아준 이명숙 연구원을 비롯하여 편집 연구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또한 그동안 함께 악보사보와 교정 및 번역과 역보 및 원고정리를 해준 이수인·노관우·김주경 등 한국음악연구소 연구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016.11.
한국음악연구소 소장 노동은